

# 담양군, 제16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 변화하는 농업환경 대응 딸기수경재배 전문농업인 40명 배출 102시간에 걸쳐 집합교육·현장 농가 상담·농기계 실습 등 진행

담양군은 지난 10월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6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6회째 이어오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담양군 주력 품목인 딸기를 선택,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스마트 영농을 접목한 딸기 수경재배 과정을 운영했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4월 5일 개강하여 10월 24일까지 총 20회, 102시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집합교육 12회, 현장 농가 상담 4회, 농기계 실습 2회, 선진지 견학 2회로 구성했다.

이날 장기간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아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은 김성수님은 “그간 배운 내용을 내 농장에 활용해 소득을 높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담양군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장을 수여한 이병노 군수는 “농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치 있는 생명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대학에서 배운 것을 기본 삼아 창의적인 생각으로 담양 딸기 산



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4차 회의 개최...캠페인도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0월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4차 회의와 더불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위원들이 그동안 실천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재 활용 병뚜껑을 모아 새 활용(업사이클링)업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정기회의 개최 후 청소년수련관부터 남산공원까지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근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그리고 남산공원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저탄소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박\*\* 학생은 “탄소 중립 실천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라도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보니 대견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수렴하고 펼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명품공원 조성에 민·관 협력’

## 나주시, 그린 거버넌스 발족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빛가람 그린(Green) 거버넌스’ 발족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빛가람 그린 거버넌스는 지난달 시민소통 간담회에서 논의된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발족했다.

거버넌스 위원은 빛가람동 사회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8명과 도시공원·녹지분야 전문가 3명, 소관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5년 10월 말까지 임기 2년간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에 대한 주요 현안 점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시는 거버넌스를 가교 삼아 빛가람혁신도시에 계획된 ‘맨발길’, ‘어린이테마파크’, ‘베베산 꽃동산’ 조성사업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나주=기동취재본부

## 김순호 구례군수,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사전 준비 당부

###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안전한 행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철저 지시

구례군이 오는 11월 4일 개최하는 제47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위해 적극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30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강

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이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철저, 진행 중인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철저 등 적극적인

적인 군정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오는 3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표에 따라 가스, 전기, 소방, 교통·질서, 시설별 관리자 인화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례군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연곡사 주차장) 운영본부에서 종합상황실, 경찰, 소방, 의료 총 4개의 부스로 안전대

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장 및 공연행사 안전 관리 상황을 유지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구례경찰서, 토지면청년회 등의 협조를 받아 행사장 및 도로변 주차 차량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관리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예방교육’ 시행 읍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정보도 제공

장성군이 읍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163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인지검사와 정신과 전문의 진료, 갑별

검사도 무료로 진행한다.

치매예방 교육과 체조, 치매안심센터 안내 등 예방 정보도 제공해 호응이 높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건강하고 행복한 장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곡성군, ‘여행할 때 곡성어때’관광 인센티브 지원 겨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한시적 완화

곡성군이 겨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광 인센티브 사업의 조건을 완화해 겨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여행할 때 곡성어때’라는 이름의 곡성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체험상품비, 숙박비, 버스임차비를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기존에는 여행 기간 중 곡성 내에서 2회 식사를 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단기 체류형 관광객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곡성군은 이 조건을 여행 1일당 1회 식사로 완화하여, 당일 여행객들도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여행기간 내에 섬진강 기차마을을 1회 방문하고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등 곡성의 체험프로그램을 2회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체험상품비의 50%가 지원되

어, 1인 및 1일 최대 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비는 객실당 하루에 3만 원, 버스 임차비는 하루에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관광 인센티브는 개별 관광객 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나 농촌체험마을에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여행 전 인센티브 사전신청서를 이메일(xorwis11@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방문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곡성군 관광과(전남 곡성군 옥곡면 기차마을로 252-16)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